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28>

편안하게 보냅시다

현대의학의 비약적인 의료기술과 기계의 발달로 과거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질병들이 치유되고 사람의 수명도 연장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의 이면에는 복잡한 의료 윤리문제가 잠재해 있다. 대표적인 문제로 안락사를 예로 들 수 있다. 몇 십 년 전만도 해도 안락사와 같은 문제는 심각하게 제기되지도 않았다. 의료보조장치가 없었던 시기엔 스스로 호흡하지 못하면 생명을 잃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산소호흡기 등 의료보조기구로 호흡을 유지시켜 살고 있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가족의 입장에선 환자를 계속 붙잡아 두고 싶지만 가족들에게 일차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너무 많이 안기고 가족 개개인의 생활을 희생시킨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놓여있다.

얼마 전(6월29일) 대법원은 가족의 요구에 따라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던 환자를 퇴원시켜 숨지게 한 이른바 '보라매병원 사건'과 관련돼 기소된 두 명의 의사들에게 살인방조죄로 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환자를 집으로 후송하고 호흡 보조장치를 제거하는 등 살인행위를 도운 점이 인정되는 만큼 살인방조법으로 처벌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모르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는 환자를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의료 기계로 붙잡아 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다.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환자를 무작정 붙잡아 두는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되지만 과연 그것이 환자를 위하는 것일까? 환자 자신도 기계와 약물에 의존해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더 이상 고통스럽게 만들고 쉽지 않을 것이다. 삶과 죽음은 자연의 이법이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거역하면 그만큼 부자연스럽게 되고 불편하게 된다. 붓다는 죽어 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편안하게 떠나갈 수 있도록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상윳타 니카야>에 나오는 가르침이다. 마하나마라는 이름의 재가 신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격심한 중병에 걸려 있는 재가신자를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처님은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위로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먼저 삼보와 계덕(戒德)에 대한 신심을 확립하도록 유도한다. 부처님, 부처님의 가르침, 불법을 따르는 성인 제자들, 바른 윤리 행위의 공덕에 대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구족하도록 환자에게 말한다. 그리고 나서 환자에게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걱정됩니까?"라고 물어 보라. 만약 환자가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다음과 같이 응답하라. "당신이 부모를 걱정하든 걱정하지 않든, 당신은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부모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그가 더 이상 부모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당신은 당신의 아내와 자식이 걱정됩니까?"라고 물어 보라. 만약 환자가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다음과 같이 응답하라. "당신이 당신의 아내와 자식을 걱정하든 걱정하지 않든, 당신은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부모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그가 더 이상 아내와 자식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당신은 당신의 오욕락이 걱정됩니까?"라고 물어 보라. 만약 환자가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다음과 같이 응답하라. "천상의 욕락이 더 좋으니 인간의 오욕락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천상의 세계를 굳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천상의 세계 조차도 무상하여 윤회의 세계에 속한다고 말하라. 그러므로 천상의 세계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열반에 고정시켜 그것을 생각하도록 하라."

임종 직전 어떤 생각 하느냐가 내생 결정
부처님 품에서 걱정놓고 떠나도록 돕자

임종을 눈앞에 둔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다음 세상에도 불법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일이다. 따라서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을 상기시키고 인과응보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도록 해 내세에 불법을 다시 만나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임종에 즈음해 붓다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일이다. 그 다음엔 떠나는 이로 하여금 부모 등 가족에 대한 걱정을 갖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사실상 죽는 사람이 걱정한들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므로 유가족은 죽는 이가 걱정하지 않도록 안심시킨다. 그리고 이 세상의 즐거움에 대한 미련을 남기지 않도록 해 더 좋은 천상의 세계를 생각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죽기 직전에 가장 좋은 생각은 열반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부처님은 결론짓고 있다. 이번 생애에 마지막으로 갖는 최후의식은 다음 세상에서 최초의 의식이 되므로 임종 직전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내세의 출생을 결정지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모든 걱정을 버리고 떠나도록 돕는 것이 임종을 앞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동국대(경주) 불교학과

지상 백고좌

"걸림없이 살고

지유 스님

(범어사 조실)

유머 감각과 깊은 선지를 담은 지유 스님의 설법은 불자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심지법문(心地法門)으로 유명하다.

우리는 보통 법문이나 설법이라고 하면 말로 하는 것인 줄만 압니다. 말로 법문을 해야 법문 잘 들었다, 멋지게 들었다고 합니다. 법문은 말이 아닙니다. 물건을 운반하는 기구가 있듯이 말이라는 기구를 통해 뜻을 전달할 뿐입니다. 뜻이 전달됐다면 말이란 필요 없습니다. 뜻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 말이 없으면 오늘 아무 법문 안 하시는구나 하고 섭섭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워낙 형상, 소리, 모양에 집착하다 보니 뜻은 소리가 아닌데 소리로 착각을 하고 말로 설법을 하지 않으면 법문을 안 한 줄 안다 이 말입니다. 뜻을 알아차렸다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심전심(以心傳心)이란 말이 있죠? 대중들을 향해 항상 귀로 들을 수 있는 법을 설해 오신 부처님께서 어느 날은 그날따라 아무 말 없이 꽃 한송이만 들어 보이셨어요. 대중들은 무슨 말씀을 하실 건가 싶어 귀를 기울였으나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 대중들은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중에 오직 한사람, 가섭 존자만이 빙긋이 웃었습니다. 말

고통의 원인은
돈·명예·권력이 아니라
마음속에 일어난 '감정'

하지 않아도 알아차리고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 것이죠.

결코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둥근 달이 있는데 그 달을 못 보니까 달을 보게 하기 위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법문입니다. 그런데 손가락만 보고 달은 보지 못합니다. 달을 봤으면 손가락은 필요 없습니다. 어떤 선지식이 달을 가리키기 위해 어떤 때는 손가락을 사용하고 또 어떤 때는 나무막대기, 혹은 쇠막대기 등을 사용했는데 부처님의 뜻을 알지는 못하면서 손가락, 나무막대기, 쇠막대기를 달달 외우면서 나는 부처님 뜻을 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보짓입니다. 쇠막대기를 통해 달을 보라고 했지 누가 쇠막대기를 외우라고 했나요? 경전을 아무리 달달 외우더라도 소용없고 불문에 들어왔으면 부처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범어사는 선찰 대본산입니다. 선(禪)이 뭡니까? 이것은 핵심입니다. 불법승을 깨달은 자리가 선입니다. 선이라 하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서산 대사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禪是佛心)'이요 '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敎是佛語)'이라고 법문했습니다.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중생의 마음입니다. 중생이라고 하면 삼독심도 있고 온갖 번뇌망상이 많은데 이 중생의 마음이 부처님 마음입니다. 이상하죠?

달마 대사께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법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많은 경전도 있었고 사찰과 승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마 대사는 "부처님의 참된 뜻은 사람 사람마다 자기 마음을 부처님이라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보도록 가르친 것이 불교다. 그런데 그 마음을 보지 않고 경전이나 불상만 쳐다보고 자기 마음을 닦지 않았다면 부처님의 뜻을 위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저 사람이 불법을 전하러 왔다고 하면서 불교를 비방하는 사람이라고 중상모략 해서 나중에 독 사발을 받았어요.

말에 집착하지 않는 불립문자(不立文字)의 가르침을 설했던 분이 달마 대사입니다. 경전이나 불상에 집착하는 헛된 착각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중에 차 마실 때 차 마시고 손님 대할 때 손님 대하는 것이 불교라는 말입니다. 일체처, 일체시에 일상생활을 해 나가되 다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생각하다 보면 구름처럼 안개처럼 가리게 되니까 제일 가까운 것이 안보입니다. 멀리 있는 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것을 봤을 때 가장 먼 것과 일치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고통이나 괴로움이 무엇인가 깊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돈, 명예, 권력이 고통의 원인 같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게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이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욕을 들으면 욕을 들은 대로 화가 나고 칭찬을 들으면 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자기 감정을 소화시키지 못해서 고통 받는 게 사람입니다. 감정을 소화시키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러면 감정을 소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 "부처님하고 중생이 똑같지만 중생은 번뇌망상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수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의 번뇌망상을 녹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하고 결론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피 흘리는 부처님의 영험 도량 가평 원흥사 (세계불교 법왕종)
신묘장구 대다라니 진언 7일 정진기도

부처님의 영험이 가득한 원흥사에서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지극정성 7일 정진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고통 받는 마음이 간절한 기도로 치유되고, 소원하는 바가 성취되도록 무루 동참하시어 이루시기 바랍니다.

옛이야기로는 삼국시대 원흥가라는 곳이 이곳이었는데 이절의 스님이 불법은 물론 부처님의 자비로움으로 병을 치료하는 신비한 힘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이곳을 찾는 신도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으며 특히 이절을 찾아 많은 신병을 치료했다고 하고, 이때부터 이절이 있던 곳을 불심의 터전이라 하여 원흥 부락이라 불리워졌습니다.

옛절은 일제시대때 소실되었으며 소승 구천이 복원 불사 중 땅속에 묻혀있던 두 부처님을 발견하고 정성껏 관욕하여 새롭게 금으로 개금하여 원흥사에 모셨고, 이 부처님께서 기이한 괴흘리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일 정진기도 토굴

기도안내
7일 정진기도
(신묘장구 대다라니 진언기도)
● 입재 :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 회향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찾아오시는 길 ✪ 서울에서 포천 일동 방향 신팔 사거리에서 현리(37번 국도) 방향 10분. 청평에서 포천 방향 20분.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 2리 494-1 전화 031)585-2090 원 흥 사 주지 구천 합장

다른 치료법과 비교 불허!
최고의 건강체를 만들어가는 지법의 척추 자기요법!!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을 위한 치료법

음양오행의 원리를 이용한 치료법
◎ 수행하는 스님들이 치료하면 척추가 곧아지고 기혈의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 심장이나 폐, 위장, 대장등 오장육부의 질환.
◎ 관절염, 골수염, 오십견, 요통등 관절의 질환.
◎ 여성들의 생리통, 요실금, 냉증등의 부인병 질환
◎ 남성들의 조루, 정력감퇴, 소변이상등의 질환.
◎ 고질적인 천식, 숙취, 변비, 감기등의 질환을 부작용없이 쉽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담없이 치료법에 대해서 문의해주십시오! 성심성의껏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란에 들어가서 보시면 치험사례 및 척추자기요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주소 : www.jibub.com E-Mail : jibub@jibub.com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자석치료의 진수
척추자기요법을 발명한 지법스님은 1976년에 법주사에 출가한 사문으로써 송광사, 봉도사, 범어사등의 사찰에서 수행하였으며 20여년전에 중생들을 질병에서 구원해주는 약사여래부처님을 호신불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동양의학에 관심을 갖고 체침을 비롯한 민간요법을 연구하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쉽고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전혀 없는 자기요법을 오직 치료효과에만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으며 인체의 가장 중요한 척추를 강하게 다스리면서 오장육부의 질환과 좌골신경통, 요통, 오십견등의 질환을 다스리는데 가장 체계화된 치료법을 발명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치료가 근골과 근육을 강하게 해주고, 체내의 노폐물을 분해하여 체외로 빠르게 배출시키면서 혈액을 맑게하고 질게하면서 혈액순환을 원활히 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후에 난치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면서 병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의술을 베풉다 많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이번에 척추자기요법을 세상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자석이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석은 크기나 가우스(세기)양이 수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이 모든 자석을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인체에 가장 적합한 자석을 사용할 때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생체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자석은 반영구적으로 자력이 변하지 않는 최고의 품질인 특수한 자석만을 엄선하여 선별하였으므로 한번 구입하시면 평생동안 반복해서 치료할 수 있고, 치료효과 또한 여타의 다른 치료법과 비교를 불허하는 원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삼폐(폐식,폐변,폐면)의 즐거운 삶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발명특허 출원된 제품 | 한세트가격: 150,000원
상담및 구입문의 : 02-987-3110 / 011-9643-8161
국민은행 824002-04-030421(예금주 : 홍현의)
내주신의 건강과 내가족의 건강을 평생동안 지켜주는 건강지킴이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귀중한 치료법!
건강을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고 연구하는 한국자기원이 되겠습니다.
韓國磁氣院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488번지

쓸데없는 생각만 멈춰라”

“생각을 벗어던지고 목전(目前)을 바로 보라.” 7월5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10여년만의 대중설법에 나선 지유 스님의 법문 한 마디 한 마디에 집중하는 부산 지역의 불자들.

법 묻는 이에게 늘 열려있는 선지식

가까이서 뵌 지유 스님

“인연 있으면, 또 공부할 마음 있으면 찾아와서 다 공부한다”며 신문에 법문이 실리는 것조차 마다하시던 지유 스님. 대중 법석에서 좀체로 만나기 어렵지만 찾아와 법을 묻는 이들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선지식이다. 원효암과 문경 관음사를 오가며 후학들을 제접하고 있는 지유 스님은 1931년 일본 동경에서 태어나 중학교 과정까지 일본에서 마쳤다. 15세까지 일본에서 생활하다 해방과 함께 귀국한 스님은 18세 되던 1949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듬해 50년 상월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와 비구계를 수지했다. 봉암사를 비롯한 전국의 제방 선원에서 수십 안거를 성만하고 문경 봉암사 및 범어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스님에겐 특별한 일화가 많다. 수마를 조복받기 위해 산 하나를 걸어 왕복하고, 라디오 부품을 분해해서 밤새 다시 조립하면서 수마를 조복 받고 장좌불와를 하는 스님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스님의 유머감각은 남다르다. 7월5일 범어사 고승 초청 법회에서도 급한 공지사항이 있어 법회가 중단되자 “법문을 하라고 했더니 하루종일 떠들어도 되는 줄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이제 그만할까요?”라고 말해 대중들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날 스님은 “불문에 들어온 이유야 천차만별 이겠지만 들어온 자리는 한자리이니, 부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바에야, 고생 고생하면서 절에 다닐 필요가 없다”며 불자들의 실천 수행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몸은 여기 있고 머릿속엔 과거·미래로 가득 차 눈앞의 현실조차 못봐

그 말대로라면 10년 전에 공부를 시작했다면 지금 번뇌망상이 다 녹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뭘 모르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번뇌망상이 있기 때문에 번뇌망상을 녹여야 된다는 생각이 잘못입니다. 번뇌망상은 본래 없는 겁니다. ‘저는 많은데요’ 하겠죠? 그것은 착각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번뇌망상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겠습니까?”

선지식이 껄껄 웃으며 “미친 놈아!”하거든요. 그러자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번뇌망상이 많아 그 번뇌망상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데 왜 미친 놈이라고 합니까?”

“없는 것을 있다고 하니 그러지. 허공에 페인트칠을 해 봐라. 허공에 아무리 칠한들 칠해지냐?”

이 비유에서 알 수 있듯 실제로 번뇌망상이 없습니다. 그림자 살짝 비친 것일 뿐인데 그림자에 사로잡히니까 문제입니다. 마치 호수에 비친 달을 붙잡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감정에 사로잡히면 현실이 안 보입니다. 현실을 볼 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나요? 기술이 필요 없죠.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생각만 털어 버리면 됩니다. 단지, 놓치지 말고 현실을 바로 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몸은 현실에 있는데 머리 속엔 지나간 과거, 오지 않는 미래로 가득 차 현실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먼 곳이라면 할 수 없지만 제일 가까운 자리를 못 보니 말입니다. 깨친 선지식에게 물어보면 “나는 가장 가까운 곳을 바로 봤다”고 합니다. 생각하면 가려서 안보입니다. 생각이 생사(生死)입니다.

화두는 “지금 이 자리를 바로 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갖 생각을 하다보니, 목전(目前)의 이것이 안 보입니다. 처음엔 뭔가 나올까 싶어 눈감고 있어 보지만 아무리 찾아도 도저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기진맥진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모든 생각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을 때, 그때 법당에서 덩~ 종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차 이제 보니 종소리구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종소리였는데 몰랐구나 하고 웃음이 나오게 됩니다. 두두물물(頭頭物物)이 다 불법이고 진리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몰랐을 때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제 생각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에서 벗어나서 밥할 때는 밥하는 모습, 일 할 때는 일하는 모습, 항상 그때그때 목전과 하나가 돼라 이 말입니다. 수행이라고 특별한 모습, 특별한 장소가 없습니다. 목전을 똑바로 직시하면서 10년을 한다면 10년 후에는 얼굴이 확 달라집니다. 생사해탈 해 버려요.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선의 뜻이 이렇습니다.

정리=천미희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진각 스님의 스님이야기

원철 스님

원철 스님과는 해인사 행자시절부터 함께해온 관계로 인연이 비교적 질긴 편에 속한다.

행자 시절에는 모두가 피교육자 신분이고 엄격한 규율아래 지내다 보니 각자의 개성이나 실력은 드러나지 않고 성격만 드러나게 된다. 행자실에서는 이름을 안 부른다. ‘찌개 보조’에서 ‘찌개장’으로 승진하면 수계전 까지는 그 행자 이름이 ‘찌개장’이다.

지금은 밥짓는 일도 압력밥솥으로 하기 때문에 일이 많이 줄고 수월해 졌지만, 내가 행자로 있을 때만 해도 가마솥에 장작불로 밥을 지었기 때문에 조금만 다른 생각에 빠져도 밥을 태우게 됐다. 해인사의 공양 짓는 법은 매우 특이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대대로 내려오는 전수법이라고 해서 ‘후 소임자’는 반드시 전임자의 인계사항을 지켜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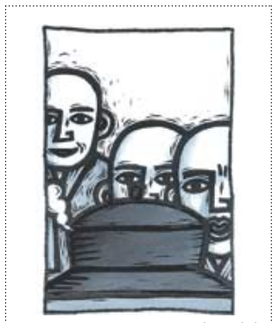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먼저 아궁이에 장작을 우물 정(井)자로 쌓은 후, 가마솥에는 펄펄 끓인 물을 붓는다. 다음에 대중숫자에 맞춰 잘 씻어놓은 쌀을 가마솥에 붓고 장작에 불을 붙인다. 그러면 채 2분도 되지 않아서 가마솥이 끓기 시작하는데, 이 때부터 공양주는 솥 양쪽으로 옮겨 다니면서 수증기 나오는 쪽에다 코를 대고 냄새를 맡는다. 냄새가 약하면 코를 솥에 바짝 갖다붙이고 손을 코 쪽으로 밥솥의 수증기를 부쳐대면서 고소한 냄새가 양쪽에서 함께 풍겨나올 때 까지 그야말로 요령소리 나도록 분주하게 뛰어 다녀야 한다.

공양주가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 공양간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소임자인 공양주의 중간 보조와 막내 보조는 분 단위와 초 단위로 큰소리로 공양주의 신호가 떨어질 때까지 외쳐야한다.

공양주의 손 신호가 떨어지면 아래 소임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래로 아궁이의 불을 번개처럼 꺼내고 준비해둔 소금을 아궁이에 뿌리면 공양 짓기가 끝난다.

나는 소금이 불과 천적관계라는 것을 이때야 알았다. 밥이 5분 이내에 지어지므로 잠시라도 딴 생각에 빠지면 금방 솥에서는 밥탄 냄새가 풍긴다. 그러면 대중참회를 해야하니 정신을 바짝 차릴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잠시라도 한 눈을 팔 수도 없고, 소임시간은 물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삼경인 밤 9시까지는 자리에 눕지 못한다.

이런 고된 행자생활을 하겠다고 몸이 호리호리하다 못해 여름에도 감기가 떨어지지 않는 연약한 청년이 해인사 행자실에 입방을 했다. 원철 스님이다. 정신력은 강했든지 대부분 몸으로 때워야하는 행자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수계를 했다.

원철 스님은 일찍이 강원에서도 글솜씨를 인정받아 해인사 강원학인들이 스스로 만든 <수다라> 편집위원과 편집장을 역임했다. <수다라>는 해마다 예산이 부족해서 편집장은 전국의 여기저기로 화주를 다녀야 할만큼 재정상태가 열악했다. 원철 스님은 이런 수고를 후배편집장에게는 넘겨주고 싶지 않아서 각고의 노력끝에 고갈된 재정을 다음해에도 책 만드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히 채워놓고 편집장소임을 넘길 만큼

빼어난 글솜씨 지닌 학구파
전통·현대 학문 두루 연구

책임감이 강하다.

원철 스님은 학구파이면서도 놀기 좋아하는 대중들과도 잘 어울리는 특이한 존재다. 우리반은 숫자가 전체학년 중에서도 제일 많았다. 그러다보니 별난 사람도 많았지만 원철 스님같은 학인 때문에 단합이 잘되었다. 지금도 동창회를 1년에 두 번 하는데, 원철 스님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대중이 하는 일에는 빠지지 않으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은 꼬박꼬박 해나가는 원칙과 소신이 있는 스님이다.

강원을 졸업하고는 해인사 율원과 은해사 승가학원, 실상사 화엄학림 그것도 모자라서 동국대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이제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참으로 꾸준한 학구파로서의 진면목을 보이고 있다. 전통강원에서는 강백 무비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았다. 현대의 학문과 전통학문을 잘 아우른 셈이다. 아마 전생에서도 책 보기를 참 좋아했었나 보다.

조계종 포교원에서도 바쁜 소임인 신도국장 소임을 보면서도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치러내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스님의 건강이 걱정되기도 한다. 나는 인적자원이 풍부한 도반들이 많은 해인강원의 우리 도반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좋다. 총무원과 지역 말사에서 열심히 소임을 보고 지역 말사에서 열심히 포교하는 스님들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꿰뚫고자 제방 선원에서 좌복의 두께를 짓누르며 정진하는 도반들을 생각하면 그냥 미소가 떠오르고 나 자신이 즐겁다. ■ 해인사 원당암

육 법 등(六法燈)

용암사(서울·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특 징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 용 범 위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총판 및 대리점 모집

세계최고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워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 108염주,12단주, 손목염주 225.000원

▲ 108염주, 12단주 195.000원

▲ 108염주, 손목염주 160.000원

▲ 108염주 135.000원

▲ 12단주, 손목염주 110.000원

▲ 12단주 85.000원
※ 손목염주 38.000원

북한에서 생산되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세계희귀의 금강약석이 주성분인 금강염주는 북한특산품으로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생산되며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사에서 국내 독점으로 반입, 조립 시판하며 화제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신 스님 및 불자님께서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를 최고의 선물로 평가하시어 추가 주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금강염주는 60여종의 미네랄 원소와 93%의 높은 원적외선, 음이온등으로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며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밝고 강한 마음으로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오며 금강의 강한 氣와 지혜로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며**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는 기도 정진시 부처님의 대광명, 대성취를 이루며 가피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 사업이 안되어 고민하고 계신 분
❖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 승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분
❖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
❖ 고시준비 하시는 분
❖ 결혼배필을 찾고 계신 분
❖ 중환으로 투병중인 분
❖ 건강(氣)이 약하신 분

금가염주는 사용할 본인이 점안식후 사용하세요.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신용카드로도 분할구입 가능합니다. 농협 743-02-563237 (예금주 정애철)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금강염주는 60여종의 미네랄 원소와 93%의 높은 원적외선, 음이온등으로 강한 氣가 발산되며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밝고 강한 마음으로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오며 금강의 강한 氣와 지혜로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며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는 기도 정진시 부처님의 대광명, 대성취를 이루며 가피를 입을 수 있습니다.

훔심이 들어간 12단주를 제작하였으니 기도 정진하시는 스님 및 불자님께 주문 판매 합니다.

전국대리점모집 사찰매장 및 불교용품점, 개인사업자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 406호